

무한 질주 벤츠, 국내시장 '톱 3' 간다

벤츠의 질주가 무섭다. 지난 달 국내에서 8025대를 판매, 벤츠는 물론 수입차브랜드 사상 첫 월 8000대를 달성했다. 그동안 판매실적으로 많은 역사를 써왔던 벤츠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내시장에서 수입차브랜드가 국내 완성차를 뛰어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국내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메르세데스-벤츠는 국내에서 8025대를 판매, 수입차 중 점유율 36.31%를 차지했다.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판매실적은 6만2933대로, 전년동기 5만7117대보다 10.2% 늘었다.

이같은 판매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기록인 7만798대를 넘어, 8만대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의 질주에 국내 완성차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5위인 한국GM을 이미 제쳤고, 3-4위인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달 내수시장에서 8401대를 판매했으며, 쌍용차는 804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



벤츠 E클래스

년동월 대비 각각 4.7%, 20.2% 감소한 수치다.

벤츠가 8025대를 판매했으니, 쌍용차와는 불과 20대, 르노삼성과는 376대 간격만 남겨두게 됐다. 특히, 벤츠의 경우 하반기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서 판매실적은 더욱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벤츠 이외에도 BMW, 아우디 등 독일 브랜드들

이 국내시장 '탑 5' 진입을 노리고 있다. BMW는 지난 달 국내시장에서 4122대를 판매하며 판매량 7위에 오르며, 한국GM과 불과 2000여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우디 역시 지난달 2210대를 판매,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완성차업계는 독일 자동차들과 국내 완성차업

수입차 최초 월 판매 8000대 돌파

3위 르노삼성·4위 쌍용 턱밑 추격

E시리즈 인기...신차 출시 효과도

고 있지만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쌍용차는 신형 코란도 기술된 모델을 출시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경쟁 차종이 만만치 않아 크게 선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OEM 수입차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독일 자동차브랜드는 경쟁력 있는 스테디셀러 모델들을 앞세워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벤츠의 경우 E클래스를 앞세워 판매량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신차 효과도 더하고 있다. BMW 역시 5시리즈의 선전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아우디는 A5, Q7 판매 재개 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업계 '만년 2위'라는 설움을 겪어왔던 벤츠가 지난 2016년 1위에 오른 뒤 독주체제를 구축했다"면서 "이제는 수입차업계를 넘어 국내차브랜드마저 위협하고 있다. 남은 두 달, 벤츠가 어떤 역사를 새로 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 음파로 노면소음 잡았다

타이어 발생 노면소음 분석
0.002초만에 반대음파로 상쇄
사상 최초 GV80부터 적용

현대·기아자동차가 음파를 이용해 실내로 들어오는 노면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제네시스 GV80부터 적용한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타이어 노면소음을 크게 줄이는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RANC)을 6년여 연구 끝에 개발, 핵심기술을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RANC 기술을 적용하면 실내 소음의 크기가 3dB 감소하는데, 이는 실내 소음에너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효과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생기는 노면소음을 실시간 분석하고 0.002초 만에 이를 상쇄하는 반대 음파를 차량 스피커를 통해 내보내서 실내 정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반응이 빠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노면에서 차로 전달되는 진동을 계속 측정하면 DSP라는 제어 컴퓨터가 소음 유형과 크기를 분석한 뒤 반대 음파를 만든다.

RANC용 마이크는 이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DSP가 소음저감 효과를 높이도록 돕는다.

0.009초 만에 실내로 들어오고 불규칙적인 노면소음을 측정·분석한 뒤 즉시 상쇄 음파를 발생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GV80콘셉트카를 바탕으로 한 RANC기술 개념도

기준에 차음재 등을 이용한 방식은 차 무게를 더해서 연료소비효율에 불리했고, 응용하는 저주파 소음을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마이크 등 가벼운 부품을 써서 저주파 소음까지 개선하는 능동형 소음 저감기술이 일부 차량에 도입됐지만 역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소음 유형이 일정하고 예측될 때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선행개발 단계에서 KAIST, 변영, ARE, 위아랩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오픈이

노베이션 형태로 했고, 양산 단계에서는 글로벌 차량 오디오 전문업체인 하만과 협업체 완성도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RANC 기술을 제네시스 신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연기관 소음이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노면소음이 두드러지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에 적용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고 그룹측은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11일 광주시 광산구 전남공고에서 자동차와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한 뒤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전남공고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들이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재능 나눔 봉사에 앞장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적십자봉사회는 11일 광주시 광산구 전남공업고등학교에서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전남공고 자동차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재능을 나눴다. 이들은 자동차산업의 이해를 주제로 자동차산업 발전사, 자동차 생산 과정, 차량관리 요령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강연과 실습을 도왔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의 연관성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다. 실생활에서 유용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했다. 강유구 기아차 광주공장 적십자봉사회장은 "이날 재능기부가 자동차에 관심이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봉사회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장애인 여행 지원 기아차 초록여행 '크리스마스&새해 이벤트'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는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이 크리스마스와 2020년 경자년을 맞아 '크리스마스 & 새해 이벤트'를 주제로, 차량 무상렌트와 유류 지원에 나선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기아차 초록여행은 이벤트에 참가한 14개 가정에 크리스마스여행 2박3일(12월 21~26일), 15개 가정에 새해여행 2박3일(12월31일~1월2일) 동안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탑재 가능한 올 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과 유류를 지원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열광에서 동반으로' 팬덤은 진화한다

— '덕질 영향력'이 문화판 바꾼다
— 사회에 선한 영향력 미치며 함께 성장

2019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WHITE MAGIC CITY : 치유도시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웃다문화에 열린 시스템
멜버른 빅토리아주립도서관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네팔④
파슈파티나트 사원 앞을 흐르는 바그마티 강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툰다①
미술, 건축, 음악의 도시 독일 슈투트가르트

예향 초대석

등단 50년, 깊어진 '꽃꽃시인' 나태주
"시인은 세상에 위로 건네는 사람"

인물 화제
독립운동가 부부의 삶과 발자취
최원순·현덕신

기획·올 가을, 그 섬에 가고 싶다
지붕없는 미술관, 연흥도를 가다

클릭, 문화현장①-여수 예술마루
100년 예술산책
'한국근현대미술결작전'

강재운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②
바다의 숨결 스민 해산물 밥상
여수 손죽도 '따개비무침'

예향이 만난 이 사람
'SCENE1980' 장간한 김지연, 한재섭
데뷔 55년, 나이 잊은 '영원한 오빠' 남진
KIA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 맷 윌리엄스

문화 읽기
공공예술 '아트 펀드레이징' 걸음마

유현준의 도시건축④
아파트 재탕 사회, 공간의 혁신이 필요하다

전시리뷰
광주시립미술관 특별전 <북경서신>전

사육사육 나드 칸이워-신안
천사섬 매력 탐험
신안 섬여행
- 천사대교 달리자
- 으뜸 천일염과 홍어